

지역 메아리

완주군, 4대 폭력 예방교육

완주군이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건전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청 문예회관에서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직원 5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의 2018년 직장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최근 사회화 문제로 확산 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발맞춰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 하고자 열린 이번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통상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양임 광양 YWCA 회장님의 강연이 이뤄졌다.

'변화를 위한 Power of One'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폭력사례와 대응 요령 등을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공직기강 잡찰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을 선출하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제시가 공무원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6일 김제시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 인원이 많으며,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간의 과열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특히 공직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감찰 강화로 선거절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보건소,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현희)는 심뇌혈관 선형질환인 고혈압·당뇨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증가현상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고혈압 당뇨건강교실'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자기관리능력 학습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김제 시민 중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중 4명, 혈당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제시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환자 및 관심 있는 김제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건강교실'을 운영해 고혈압 당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내 혈압 혈당 수치를 알며 스스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율과 질환별 조절을 및 지속관리를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기업 업체 소통 강화

완주산업단지 순회 소통간담회... 애로사항 청취 등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 1위' 완주군이 관내에 입주한 업체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지원 사업들을 설명하는 등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완주군은 완주산업단지 순회 소통간담회를 지난 3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3일과 5일, 완주군은 정석 케이칼, 한솔케이칼 회의실에서 완주 일반 산업단지 기업 대표(24개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영선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 업체들에게 완주일반 산업단지 순회 소통간담회를 갖게 된 점을 설명하고, 각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청취로만 끝나지 않고 해결되도록 완주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으로 완주 산단 내 버스 미운행 구간에 30분~1시간 간격으로 순환버스 운행요

청, 노후산단 내 우수관 점검 및 교체요청, 지원사업 홍보시 메일이나 문자 전송 등이 요청됐다.

완주군은 건의된 사항들을 해당부서 전달해 해결 또는 추진사항을 각 기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은 오는 12일 완주산업단지 회의실에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완주산단 순회 소통간담회를 이어간다. 하반기에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1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모악산축제 성료

마실길 걷기 대회 등 참여 프로그램 '호평'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3일간 모악산(금산사) 일원에서 열렸던 제11회 김제모악산축제가 신록으로 물든 봄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내년을 기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지난 2017년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창궐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었던 만큼, 올해에는 더욱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축제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큰 호평을 이끌어 냈다.

6일에는 축제 서막을 여는 국악과 비보이의 퓨전 하모니 공연과 겨우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생동하는 봄을 상징하는 개막주제곡인 '봄향(春香)', 봄의 향기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무풍청상'의 붓도인 그리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생활문화공간 콘서트' 등 지역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7일에는 주말을 맞아 700여명의 등산객이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대회'와 보건의 날을 기념

하기 위한 '차매극복 건강걷기 대회'를 통해 모악산의 정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머니들이 참여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공연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동과 사랑 그리고 모악산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전해주었다.

이후전 김제시장관한대행은 "이번 김제모악산축제는 품격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되었으며, 아울러 모악산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가을에는 '문화관광부 지정 글로벌 육성축제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상 그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사할 준비가되어 있으니 김제를 언제든지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우현)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25명,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주민참여예산 전문 위탁교육으로 올해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참여흥기를 부여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과 맞닿아 함께 소통하는 위치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공무원까지 이번 교육에 함께 참여시켜 공무원의 위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

하고자 했다. 여수시의 성공적 민관협력사업으로 꼽히는 주민사업체 '수-레인보우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김제시에 접목이 가능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했으며 오후부터는 디오션리조트에서 주민참여예산 전문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오관영 강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며 주민참여예산분야에서 이론은 물론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주민참여예산의 정의 및 개념,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김제시 예산에 대한 맞춤형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완주군이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2018년 2분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는 (주)아시아, (주)한국토미, (주)원진알루미늄이 참가해 30여명의 청장년을 채용할 예정이다.

설치용 금속재조 율타리를 주로 생산하는 (주)아시아는 용접원, 생산직, 자재관리 및 배송직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주요 업종인 (주)한국토미는 생산직분야를 각각 채용할 예

정이다. 두 업체 모두 특별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인근거주자나 운전가능자는 우대한다.

유리 및 창호 공사업과 제조업이 주요 업종인 (주)원진알루미늄은 창호설계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캐드활용 능자, 관련자격증 및 직무경력 경험자를 우대 채용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청장년 중 이력서를 지참하거나 담당 작성해 접수한 구직자는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채용여부 및 결과는 업체가 추후 통보하게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아리랑문학마을, 봄맞이 꽃 식재

백골제아리랑사업소(소장 이영석) 아리랑문학마을에서는 지난 6일 봄을 맞아 봄 꽃을 심었다.

공원녹지과의 도움을 받아 아리랑문학마을 단지 내 자투리 화단 및 화분에 꽃 묘인 팬지, 앵초 등 꽃묘 (700) 그루 정도를 청원경찰 및 공공근로자들이 식재에 참여했다.

이날 아리랑문학마을로 견학 온 지평선고등학교(성덕면 대목리 소재) 재학생 및 교사 120여명은 식재된 꽃들을 보며 "와 너무 예쁘다" 라고 환호를 자아내며 식재된 주변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기도 했다.

아리랑문학마을 정양호 담당은 "꽃묘 식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리랑문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꽃기르기, 잡초제거, 수목관리 등 환경정비를 꾸준히 실시



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 점검 등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